‘마이산을 지켜라! 돌탑수호대’

진안군, 25일~8월 2일 마이산 북부 농촌테마공원 광장서 ‘여름 물놀이장 행사’ 개최

진안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8월 2일까지(7월 29일 휴장) 마이산 북부 농촌테마공원 광장에서 ‘2026 진안군 여름 물놀이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안군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마이산을 지켜라! 돌탑수호대’를 주제로, 시원한 물놀이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참여형 콘텐츠로 꾸며진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행사장에는 워터슬라이드와 물썰매,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상시 운영한다. 여기에 스탬프 투어와 족욕 공간도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무더위를 식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주말인 25~26일과 8월 1~2일에는 더욱 풍성한 특별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대표 프로그램인 ‘돌탑수호대’는 마이산의 상징인 돌탑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형 체험 콘텐츠다. 참가자들은 수호대원이 되어 △생명의 샘 깨우기 △돌탑 지키기 △생명 에너지 모으기 △돌탑 쌓기 △봉인 해제하기 등 다섯 가지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돌탑수호대 임명장과 배지, 상장이 수여돼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6 진안군 여름 물놀이 행사 포스터

또한 시원한 음악과 함께 즐기는 워터 DJ 파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버블 공연, 부채 만들기와 키캡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쿨푸드 챌린지’는 진안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가족이 함께 여름철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입장객은 수영복과 모자, 아쿠아슈즈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및 (사)진안군관광협의회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민회 한마음 가족대회 열려

농업인 노고 격려 · 화합행사 등 지역 농업 발전 다짐

무주군 농민회가 20일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다짐하는 ‘2026 무주군 농민회 한마음 가족대회’를 개최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무풍십승지문화센터에서 무주군 농민회 주관으로 한마음 가족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농민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념식을 비롯해 화합행사와 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무주 농업의 발전과 풍년을 기원했다.

한편 무주군 농민회는 농민 권익 보호와 농업환경 변화 대응, 우리 농산물 지키기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장학금 기탁과 마을 환경정화, 산불 피해 성금 기탁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매년 영농 발대식과 풍년기원제를 개최하며 농업인의 단결과 지역 농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장수소방서, 제16대 정지현 서장 취임

장수소방서는 제16대 정지현 신임 장수소방서장(사진)이 21일 공식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지현 서장은 1993년 전라북도 소방사 공채로 소방에 입문한 뒤 33년여간 일선 재난 현장과 주요 행정 부서를 두루 거치며 현장 지휘 능력과 행정 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방국 방호과, 전라북도 감사관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등 조직 내 핵심 부서를 거쳤다. 이와 함께 익산·정읍·군산·전주완산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에서 풍부한 현장 대응 경험을 축적했으며,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을 거쳐 최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기획예산팀장으로 근무하며 도내 소방 정책 기획과 예산 운용을 이끌어왔다.

정 서장은 21일 취임과 함께 각 과 및 단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 당면 현안을 보고받고 관내 자연 취약 시설 등 안전 인프라를 점검하는 것으로 서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정지현 서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미래 인재 양성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태권도진흥재단-전북교총 ‘맞손’

건강한 청소년 육성 · 미래 인재 양성 협력 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미래 인재 양성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적 협조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북교총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교육 콘텐츠 기획, 교원 직무 연수 과정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전북교총은 오는 8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회장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태권도원에서 개최하고 9월에는 한국교총 청년위원회 워크숍을 태권도원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태권도진흥재단과 협의하기로 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023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방학 기간 중 ‘교원 특수 분야(태권도) 직무 연수’ 과정을 운영 중으로 참가자 선정에 있어 전북도 교원을 50% 배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진안군, 노지 수박 차열망 터널 재배 시범사업 추진

진안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강한 일사로 인한 노지 수박의 품질 저하를 줄이기 위해 고온 경감 기술을 적용한 ‘노지 수박 차열망 터널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해 10ha 규모로 추진되며, 고온기 노지 수박의 생육 안정과 품질 향상,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

최근 여름철 이상고온이 반복되면서 노지 수박은 햇볕 데임(일소)과 생육 저하, 당도 감소 등 품질 저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터널 내부의 복사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차열망을 지원해 현장 실증 재배를 실시한다.

차열망은 일반 차광망처럼 단순히 햇빛을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복사열은 반사하고 필요한 광은 투과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터널 내부 온도를 낮추는 동시에 광합성 효율을 높여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박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장수군은 오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군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은 승용차 8대, 화물차 2대, 승합차(버스) 1대 등 총 11대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210만원, 화물차는 최대 1억200만원, 승합차(버스)는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전기택시, 택배용 차량, 소상공인, 농업인, 다자녀가구,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 이하 계층 등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돼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진안군의회(의장 김명갑)는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청취,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진안군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기로,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20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김명갑 의장은 “제10대 진안군의회가 원구성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인 만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조례안과 예산안은 물론 주요업무계획까지 꼼꼼히 살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제386회 임시회 개회

장수군의회(의장 정상득)는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의 심사를 위해 7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8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장수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임시회로 이번 회기를 통해 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시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정상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의 삶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